

## 문화일보, 순환골재 '제품' 개념 정립 등을 주제로 기획기사 보도

우리 협회는 업계 현안인 '순환골재 개념 재정립' 등 순환골재 인식개선을 위해 언론 보도를 추진하였고, 지난 1월5일자 문화일보(26면)에 '값싸고 환경 살리는 순환골재 홀대... 관리기준·법규개선 서둘러야' 라는 제목의 기획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값싸고 환경 살리는 순환골재 홀대... 관리기준·법규개선 서둘러야

#### ◆ 순환골재 품질은 천연골재와 비교해서 손색없는 수준

한국산업규격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비교표에 따르면,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기준으로 순환골재의 절대 건조밀도는  $2.5g/cm^3$  이상으로 천연골재와 같다. 흡수율(3.0% 이하)과 안정성(12% 이하)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순환골재의 제품 가격은 천연골재의 60%수준이라 많이 사용할수록 공사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 탄탄한 양질의 순환골재 수급기반에 비해 순환골재 활용율은 미미

2019년 말 기준으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인증을 받은 기업은 339개, 콘크리트용 인증 취득 기업은 117곳을 기록하는 등 양질의 순환골재 수급저변은 탄탄해졌으나, 2018년 기준 전국 골재 수요 2억5149만 $m^3$  중 순환골재 사용 비중은 13.9%(3509만1000 $m^3$ )에 불과하다.

#### ◆ 순환골재 인식개선 및 사용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가 '제품'이라는 명시적 규정 마련, 민간건설현장에도 적용되는 '의무사용제도' 확대 필요

건설폐기물법 상 순환골재가 제품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대법원 등에서 사안 또는 행위에 따라 순환골재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순환골재의 부정적 인식 확대와 사용기피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순환골재가 '제품'이라는 명확한 개념정립과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의 민간분야 확대가 필요하다.

#### ◆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올 상반기 중 순환골재 개념 명확화,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할 것”

박대수 국회의원은 “순환골재가 소중한 자원임에도 법령상 문제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올 상반기 중 법안을 새롭게 발의할 것”이라며, “순환골재가 제품이라는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높은 관리기준 및 품질향상 방안,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확대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순환골재가 명실공히 건설자재(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기사 원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oras.org) 업계뉴스 게시판 또는 문화일보 홈페이지(www.munhwa.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